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물 증정 시간을 가집니다.
- 오늘 점심은 조남희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 먹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은 이영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춘계야유회' 관계로, 1부·2부 통합예배로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낮예배 대표기도는 신동기 집사님입니다.
- 남여선교회 주관으로 '봄맞이 전교인 야유회'를 5월 12일(주일)에 가집니다. 사전 일정 잘 조성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하늘문의 만나> 5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본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묵상용·전도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필리핀 보홀 단기선교'를 위한 첫 모임이 오후 찬양예배 후에 본당에서 가집니다. 참가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아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연계하여 '어르신 야유회'를 5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가집니다. 야유회 장소는 '이천 도자기 마을'입니다. 관심과 기도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5월 26일
예배기도(2부)	권용기 집사	신동기 집사	박성대 집사	오진석 집사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조남희 집사 가정	전교인 야유회	강숙여 권사 가정	가정의 주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환우들을 위해서(곽성미 집사 등)
-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성시교독 교독문 4번(시편 5:1-8) 다 갈 이
 *경배찬송 4장(통 4장) 다 갈 이
 *참회기도 다 갈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양과 기도

찬 송 570장(통 453장) 다 갈 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권영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요 21:18-25 인 도 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 도 자
 말씀선포 '주께말기인생' 허영진 목사
 마무리기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 도 자
 *결단송 620장 다 갈 이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김전희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청년부 다 갈 이
 여는기도 인 도 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마 18:1-10 김전희 목사
 말씀선포 '높아지려고 할 때는' 김전희 목사
 기도 김전희 목사
 교회소식 인 도 자
 결단찬송 220장 다 갈 이
 축 도 김전희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17:1-13 '아, 변화산'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가정의 달에 부친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부릅니다. 이는 아마도 1년 모든 계절 중 어린 것들의 가장 신비로운 성장과 눈부신 생동감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움이 넘쳐나며 여름을 앞둔 봄철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5월은 어린 이날을 시작으로 사랑해야 하는 때임을 알리는 날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 된 날들로 빼곡히 달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억에 남을 이벤트를 만들어주어야 하고, 동시에 부모님께 섭섭지 않은 선물을 준비하려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위의 인간 관계를 돌이켜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면 유익함도 많습니다.

그래서일까. 인간의 삶 속에서 가족과 가정이 주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훈 중 하나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뤄진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며, 오늘날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을 있게 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도 가족의 중요성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상영되어 세계적 이슈를 일으킨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영화 <미나리>는 국경을 초월해 가족, 열망, 아메리칸 드림 추구라는 보편적 주제를 공명시키는 가슴 아픈 서사를 펼쳐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가족을 둘러싼 여러 관계가 잘 못 꼬이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폐해들은 더욱 파괴적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인 <안네 카레리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집안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이나 부유함 등과 같은 행복의 조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집안은 제각기 다른 문제들 때문에 고통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나를 있게 해 준 모든 분, 가령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 소중한 가족관계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더 늦기 전에 가까운 이에게 감사의 전화나 메시지라도 보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Written by 허영진